

6.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3월 18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자치행정국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18일
- 상정일자 :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3월 21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진광식)

□ 제안이유 및 구성내용

- 지난 12월, 정례회에서 제정된 「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」에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되어있음.
- 공론화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되는데,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3명이 되며,

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부시장, 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 등 3명임.

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추천한 김병태 의원, 김대현 의원, 전경원 의원 등 3명으로 동일함.

- 위촉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,

청사 건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조경, 정치행정, 인문사회, 통계분석, 도시계획, 지리교통, 문화관광,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가 각각 4개 분야로 나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위원 추천자를 선정하였음.

□ 추천 위원 선정과정

- 대구시에서는 우수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단체나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전문가를 추천받음과 동시에, 자체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를 추가로 파악하였음.

이를 토대로 후보자풀을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였음.

- 먼저,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보도나 기초 의회 의결을 거쳐 유치 의사가 확인된 대구시 중구·북구·달서구·

달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위원은 위촉 대상자에서 배제하였고,

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덕망이 있고 참여의지가 강한 사람과 청사 건립, 입지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.

- 그리고 균형 있는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같은 학교와 단체에 소속이 중복되는 인사의 선정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,

향후, 4개 구·군 외 유치의사가 확인되는 자치구가 있을 경우, 위원 제척에 따라 회의 진행이 불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를 예방하고자 타 시·도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선정하였음.

-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7명은 시의회 내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영구)

○ 이 동의안은

- ▶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, 「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 위한 것임.

○ 먼저,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

- ▶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04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, 막대한 건립비용 문제를 비롯한 대구시 재정여건과 경제사정으로 그동안 미루어져 왔으며,

현 청사는 본관과 별관의 분산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으로, 타 시·도 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임.
- ▶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0년 신청사 건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2년에 기금 50억원 적립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건축 비용(부지매입비 제외)의 절반수준인 1,308억원(이자 포함)을 확보하였음.
- ▶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, 절차, 방법 등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」를 2018년 12월에 제정하였음.

○ 다음으로, 위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

- ▶ 위촉 대상자 14명은 시장이 7명,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 하였으며, 각각 4개 분야 전문가로 위촉위원을 추천하였음.

※ 분야별 추천 현황

- (시장 추천) 건축조경(2), 정치행정(2), 인문사회(2), 통계분석(1)
- (시의회 의장 추천) 도시계획(2), 지리교통(2), 문화관광(2), 갈등관리(1)

- ▶ 위촉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언론보도 또는 구·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의사가 확인된 구·군에 주민등록 및 등록 기준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, 청사 건립 및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.
- ▶ 다만, 신청사 건립 유치의사를 표명한 4개 구·군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사 건립 유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타 시·도 전문가를 많이 선정할 것으로 보임.
- ▶ 이번 동의안 제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 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주도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 위원회 위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- ▶ 따라서,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은 향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성·투명성·객관성·전문성을 확보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새로 건립될 대구시 청사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행정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·문화·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향후 연말까지 신청사 건립 추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?	○ 4월경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을 결정하고, 상반기 중으로 8개 구.군으로부터 후보지 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평가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,
○ 추천된 위원 중 한명이 주소가 남구로 되어있음. 남구는 신청사 건립 유치를 직접 희망한 지역은 아니나 국회의원 지역구로 보면 중.남구로서 하나의 지역인데?	○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확정하여 발표하여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매듭을 지을 예정임
○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면 어떤지?	○ 이 부분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등 예정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아님. 향후 시민참여단 구성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살피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	○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제안을 해보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